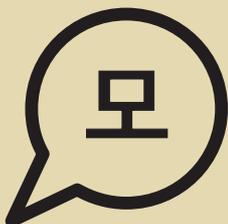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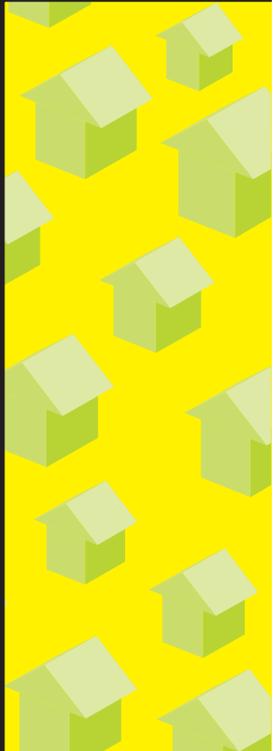


사이타마시



방재도시만들기 계획

2016년
개요판



모

사이타마시 방재도시만들기 계획이란?

『사이타마시 방재도시만들기 계획』은 안전·안심을 위한 방재 “만”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만이 아닌 편의성과 쾌적성도 대비한 안전하고 살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방재 “모”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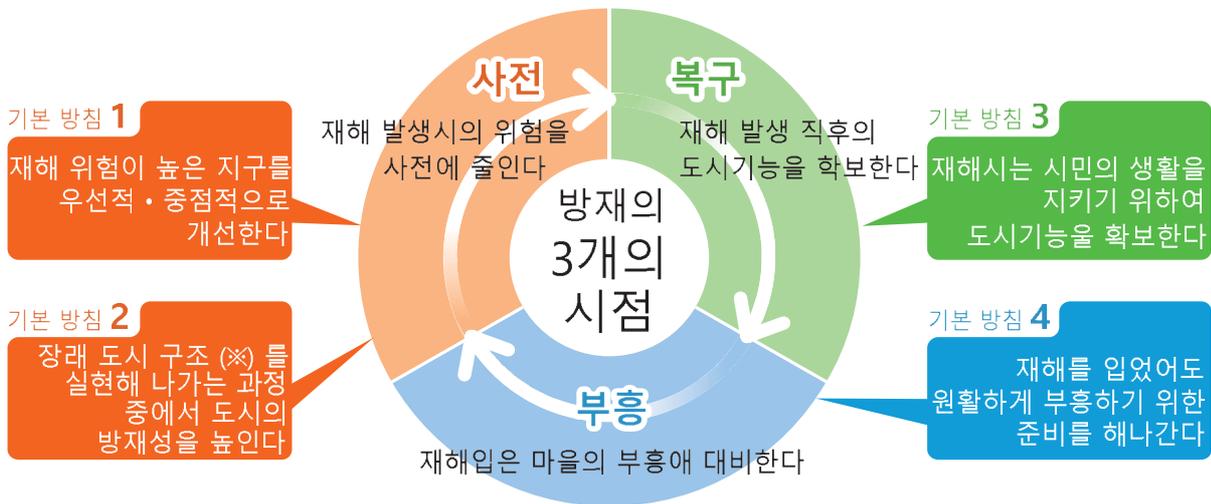


방재도시만들기 계획 책정의 목적

『방재도시만들기 계획』은 방재라는 긴급 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해에 강한 공간 만들기과 피해시의 피난이나 응급활동을 서포트하는 공간 만들기의 기본 방침과 구체적 시책을 정하는 계획입니다. 본 시에서는 시민·사업자와 행정의 일체가 되어 더 안전하고 살기 편한 도시를 만들어 만일에 재해가 일어나도 재빠르게 복구하고 원활한 부흥을 가능하게 하는 도시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사이타마시 방재도시만들기 계획』을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계획의 시점과 기본 방침

지금까지의 방재대책은 진재가 발생하기 전의 대처에 중점을 두었지만 근래의 대진재의 교훈을 근거로하여 만일 재해를 입을 경우를 상정하여 재빠르게 복구하여 원활하게 부흥하기 위한 대책을 평상시부터 진행해 나가는 일이 중요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재도시만들기 계획』의 책정에서는 3개의 시점으로부터 4개의 기본 방침을 설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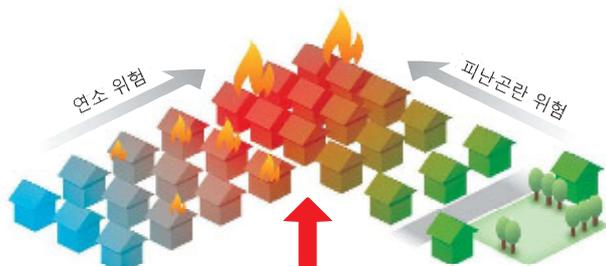
중점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해 위험

본시의 방재도시만들기에서는 지진재해에의 대응에 중점을 두고 지진에 따른 대규모 연소 확대의 위험성을 경감시키는 도시 만들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시에서 상정되는 재해 위험



대규모의 연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발생해도 피난장소 등에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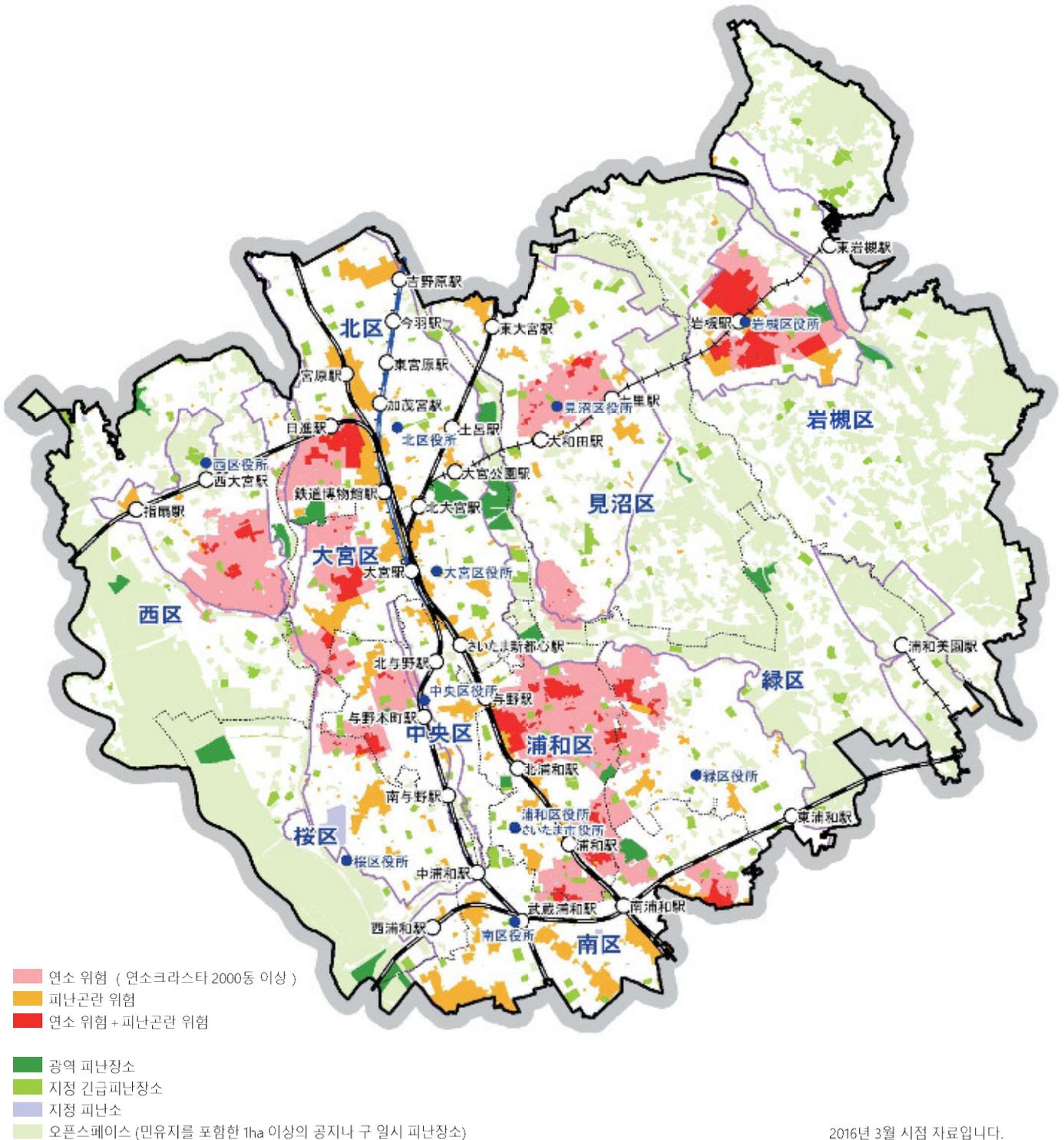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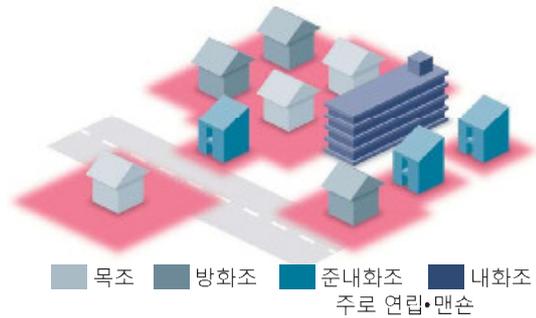
방재도시만들기 계획에서
중점적으로 대응하는 재해 위험

재해 위험의 평가

연소 위험과 피난곤란 위험의 평가

대규모지진시에 화재가 발생하고 광범위하게 타서 번질 가능성이 있는 『연소 위험』과 도괴 위험이 있는 건축물이 피난로를 막고 있을 경우 등 『피난곤란 위험』을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시내에 있어서의 각 위험의 분포상황이나 양방의 위험이 겹쳐있는 지역의 존재를 확인하였습니다.





피난곤란 위험이란

대규모 지진때 구 내진기준 (1981년 이전)에 의해 건축된 건축물은 전부 무너진다고 상정하고 그것에 의해 피난로가 막히는 일이나 500m이내에 피난장소나 오픈스페이스가 없는 것에 의해 유효한 피난을 할 수 없는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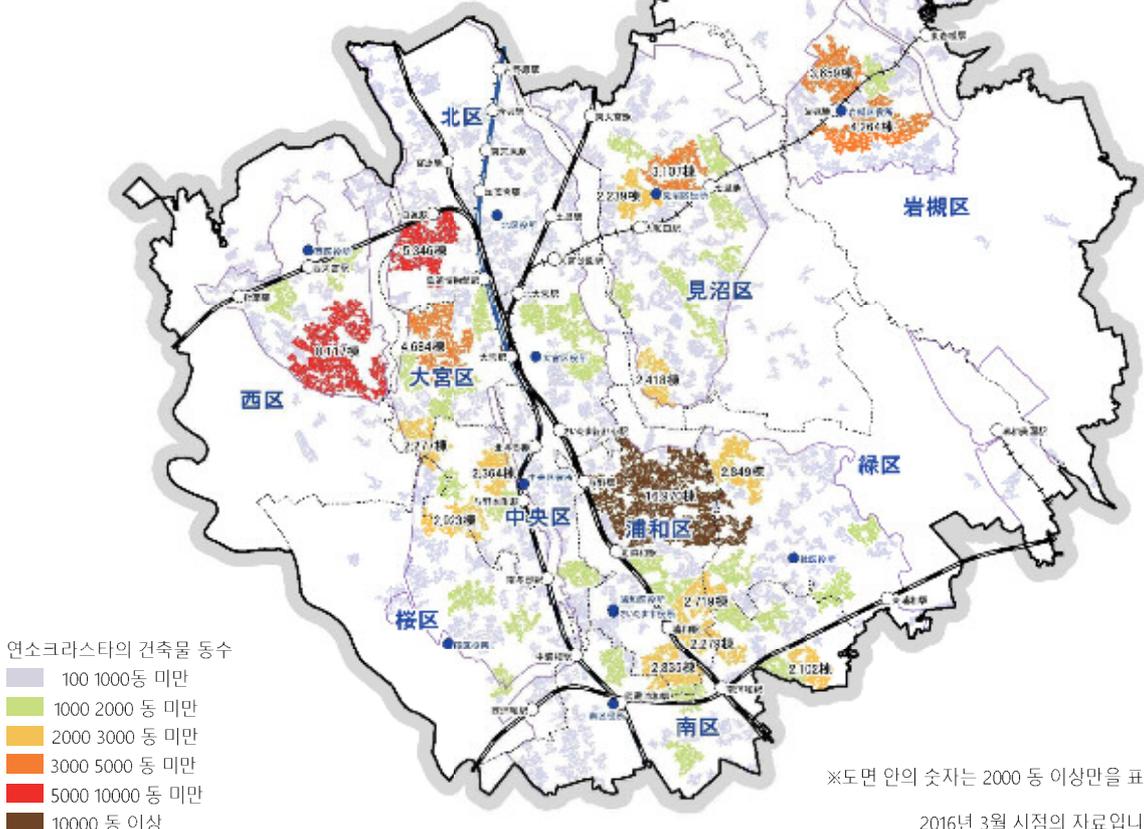


연소크라스타란?

대규모 지진시의 화재 때에 소화활동을 충분히 할 수 없다고 가정하여 임의 건축물로부터 출화한 경우는 건축물의 구조·규모와 건축물 밀집 상황에 의해 일체적인 연소가 미칠 가능성이 있는 범위

연소 위험의 평가

본시에서는 연소크라스타의 분석에 의해 불이 타서 번질 가능성이 2000동 이상의 범위가 되는 것을 연소 위험이 높다고 보고 있어 도심·부도심 등의 주변에 형성돼 있는 주택에 연소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책 1

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 · 중점적으로 개선한다

재해 위험이 높은 지구에 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행정과 주민이 일체가 되어 전개하는 시책입니다. 재해 위험과 지역 특성 등에 따라 효과적인 시책을 전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3스텝에 의해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갑니다.

STEP 1

연소 위험의 평가

대규모의 연소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구역을 연소크라스타에 의해 추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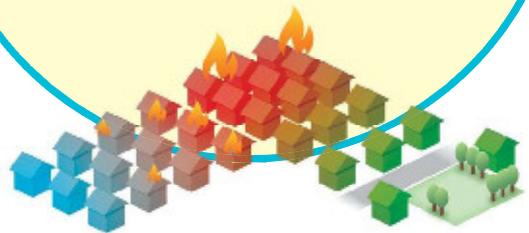


연소 대책 구역

STEP 2

연소와 피난곤란의 위험에 지역 특성을 고려

연소 대책 구역 중, 피난이 곤란한 지역을 추출하여 건축물의 밀집 상황이나 도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중점적인 동시에 우선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추진지구후보』로 세워 종합적인 마을 만들기를 추진해 나갑니다.



추진지구 후보

STEP 3

추진지구후보에 관하여 주민의 의향을 고려함

재해 위험정보나 추진지구후보의 정보를 주민과 공유하고 주민이 주체가 된 대처를 추진할 수 있는 지구를 『추진지구』로 하여 방재 “모”를 포함한 환경의 향상을 도모해 갑니다. 또한 추진지구의 설정에 있어서는 주민의 요망과 지역의 마을 만들기 활동을 하는 범위를 중시하지만 재해 위험이 낮은 지역이나 이미 대책이 강구된 범위를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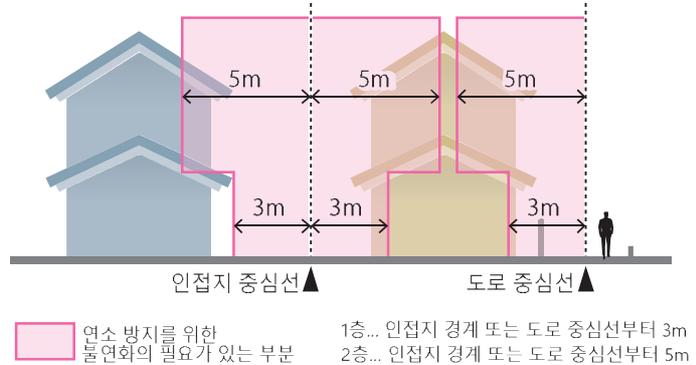


추진지구

연소 위험이 높은 구역의 개선

■준방화지역에 의해 불연화조치가 필요한 부분

연소 위험 평가의 결과 연소에의 대책이 필요한 구역(연소 대책 구역)에 대해서는 『방화지역·준방화지역(※)』의 지정에 의해 건축물의 불연화를 촉진하고 연소 화재의 확대를 억제하고 불에 타서 번지기 힘든 시가지로 만들어 나갑니다.



연소와 피난 곤란 위험을 안고 있는 지구의 개선

연소 위험이 높은 지역 중에서 피난 곤란 위험 및 지역특성의 평가를 포함하여 『추진지구후보』를 설정합니다. 그 위에 추진지구 후보에 있어서 주민의 의향 등을 포함하여 『추진지구』를 설정하고 지구의 개선을 해 나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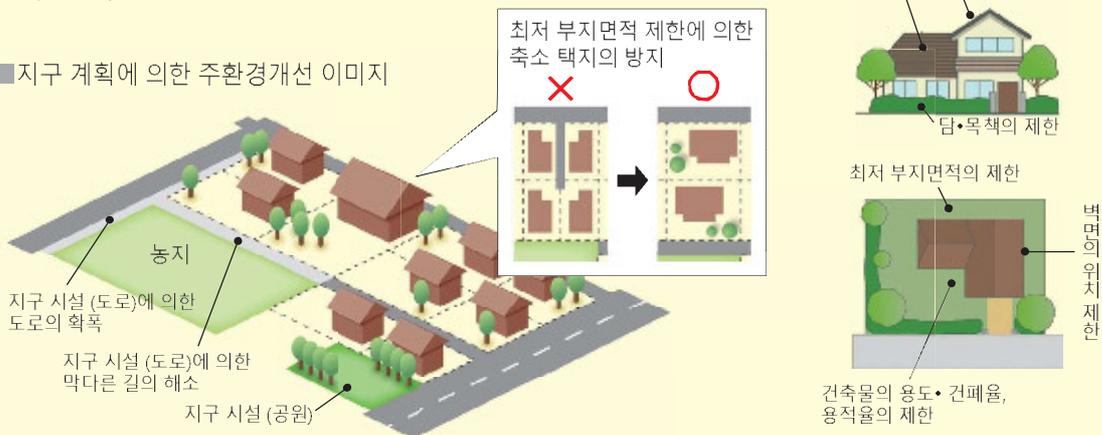
【개별 대책의 추진】

- 건축물의 개선을 향한 내진보강 등 조성 사업의 활용
- 도로 개선을 향한 협매 도로(※) 확장 정비 사업의 촉진
- 오픈스페이스의 보전·확보
- 소방 수리(※)의 설치, 방재 비축창고, 방재 기자재의 충실, 자주 방재 조직활동의 강화

【지구 계획(※)의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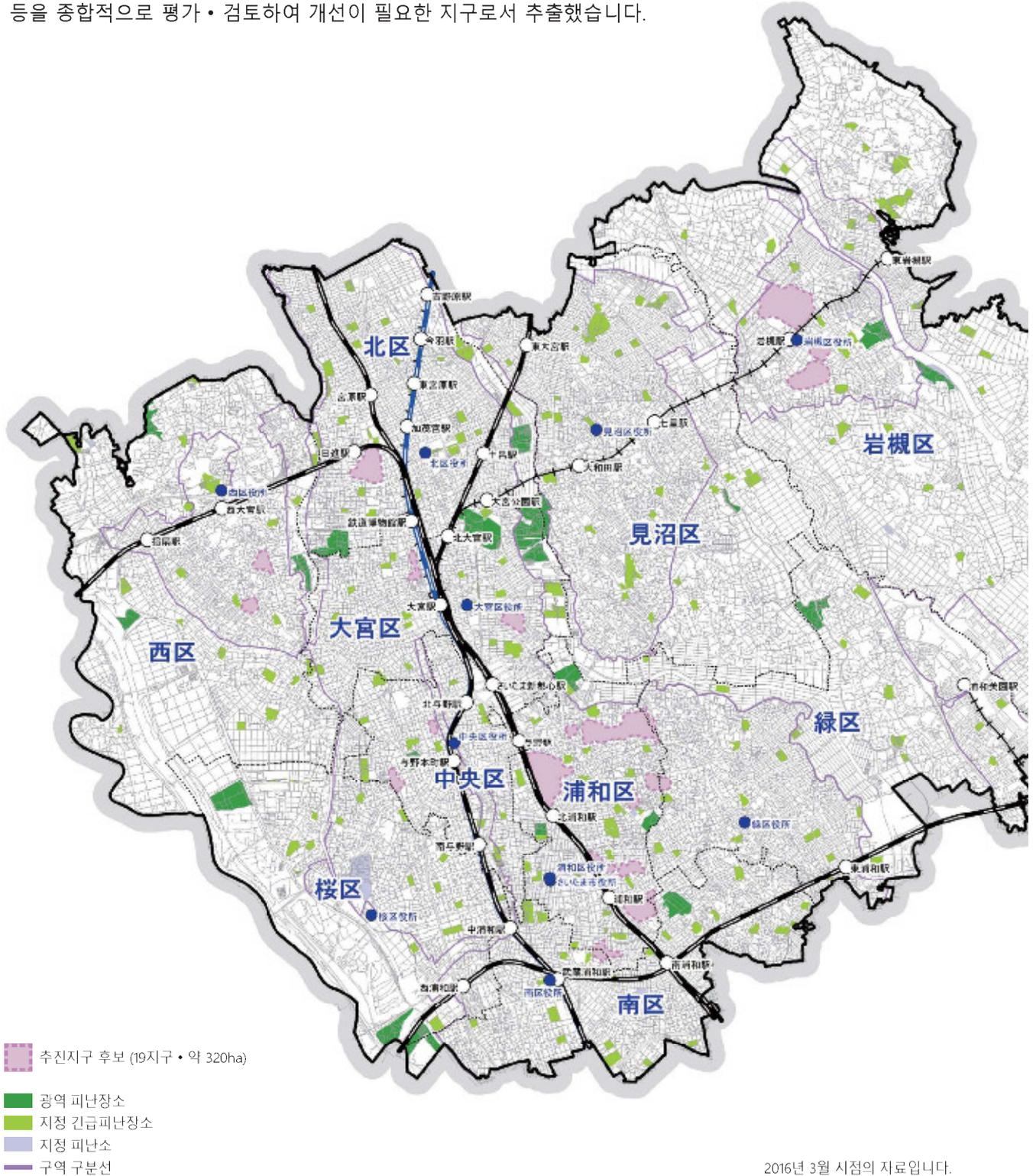
- 저밀도로 양호한 주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 부지면적의 설정
- 일정의 도시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지구 시설(도로, 공원 등)의 결정
- 도로나 옆 부지로부터의 벽면 후퇴 거리(※)의 설정
- 담(울타리) 또는 목책의 제한, 나무 울타리화

■지구 계획에 의한 주환경개선 이미지



추진지구 후보의 설정과 그 지역특성의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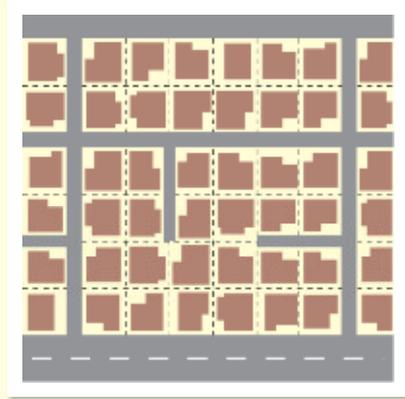
연소 리스크와 피난 곤란 리스크가 겹치는 지구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실행하고 건축물의 짝 차계 (빽빽하게) 지은 정도나 피난 곤란의 원인이 되는 도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지구로서 추출했습니다.



오픈스페이스가 적고 이미 건축물이 빽빽하게 지어져 있는 지역

- 구획도로는 대부분 정비가 끝났지만 좁은 도로가 많다
- 피난장소로 가능한 오픈스페이스가 적다
- 부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빽빽하게 건축하거나 3층 주택이 증가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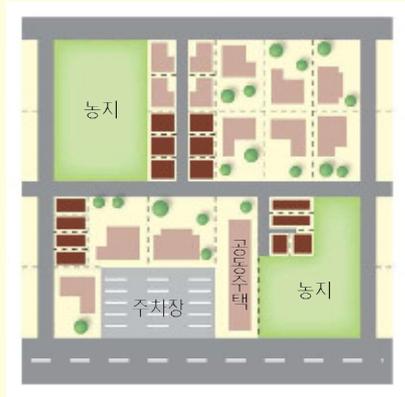
부지 세분화에 따라 막다른 도로가 설치되어 좁은 부지에
꼭 차게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다.



여유 있는 주택지로부터 부지의 세분화가 계속 진행 중인 지역

- 구획도로는 대부분 정비되어 있지만 협소 택지의 증가와 함께 막다른 도로가 증가
- 부지가 세분화된 일로 인하여 빽빽하게 건축하는 일이 진행
- 택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주차장이나 농지 등이 분포

부지의 세분화나 농지의 택지화에 따라 협소 주택이 증가 중이다.



기반 미정비의 상태로 택지화가 진행 중인 지역

- 구획도로는 미정비 또는 부정형으로 부분적인 택지화에 동반하여 가로가 무질서하게 형성
- 세분화된 부지에 건폐율 빠듯하게 건축하는 것에 의해 빽빽하게 건축되는 것이 진행
- 택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주차장이나 농지 등이 분포

기반이 정비되지 않은 채로 미니 개발이 진행되어 부지의
세분화나 농지의 택지화에 의해 협소 택지가 증가 중이다.



방재도시만들기의 구체적 시책

시책2 **장래 도시구조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 중에 도시의 방재성을 높이는 시책**

도시 전체의 방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래 도시구조에 응한 토지이용을 유도하고 도시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다하는 거점이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안전한 고밀도 시가지의 형성

- 도심·부도심 등의 시가지 개발의 우선적인 추진
- 시가지의 불연화, 도로나 오픈스페이스 등의 골격적인 시설의 정비

재해위험을 고려한 토지이용이나 도시시설의 정비

- 침수나 액상화 위험이 높은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의 억제
- 재해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있어서의 피난장소·연소 차단대·피난로의 우선적인 정비



시책3 **재해시에 시민의 생활을 지키기 위한 도시 기능을 확보하는 시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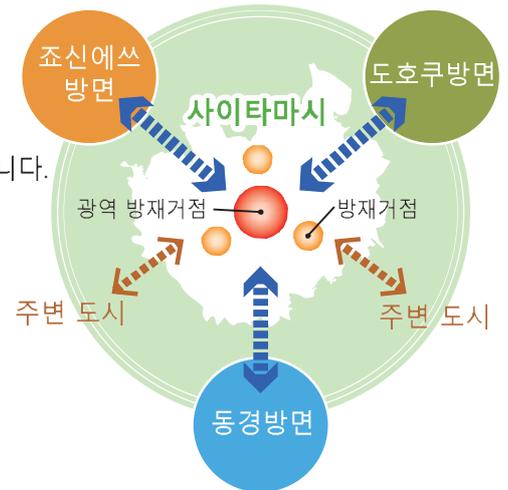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시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하여 응급·복구를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평소부터 준비해 놓기 위한 시책입니다.

광역 방재거점의 정비

- 오픈스페이스의 정비
- 긴급 재해대책본부의 대체 거점
- 긴급 재해대책 파견대(TEC-FORCE)나 긴급 소방 원조대의 집결 거점

광역적인 도로 네트워크의 정비

- 긴급 수송도로의 가일층의 네트워크화나 연도 건축물의 내진화
- 자동차전용도로의 네트워크화



시책4 **피해를 입었어도 원활하게 부흥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는 시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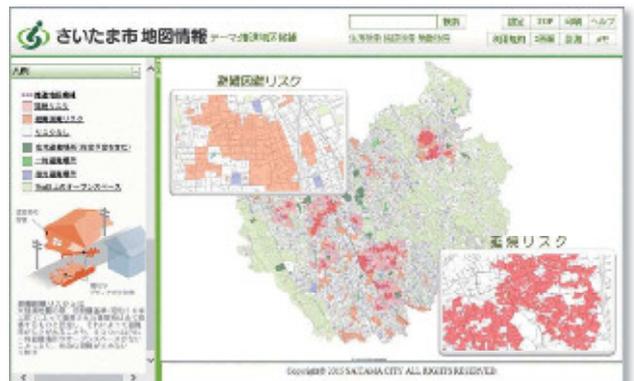
만일 본시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원활하게 부흥하기 위하여 시민과 행정이 평소 때부터 준비해 놓기 위한 시책입니다.

재해시 대응력의 향상

- 계속적인 모니터링(※)에 의한 재해위험의 파악
- 부흥 이미지 훈련의 실시

진재 부흥 행동지침의 작성·활용

- 부흥의 역할분담의 명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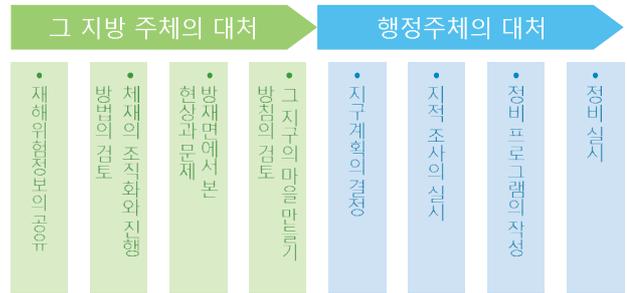
■ GIS (※) 에 의한 재해위험의 모니터링(이미지)

방재도시만들기 계획의 진행 방법

추진지구에 있어서의 대처의 지원

주민의 의향을 근거로 「추진지구」로 평가된 지구에서는 그 지구가 안고 있는 과제에 종합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한 마을 만들기의 방침이나 유효한 시책에 대하여 검토해나갑니다. 또한 검토에 있어서는 지구주민이 주체가 되어 하나가고 있습니다만 주민에 의한 대처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사회자본 정비 사업에 관계된 조정을 시작으로 각종 기존 사업·시책을 실시해 나갑니다.

■추진지구에 있어서의 마을 만들기 순서의 이미지



장래 도시구조 실현을 향한 사회자본의 정비

장래 도시구조 실현을 향해 우선적으로 대처해야만 할 과제나 대처 방침 등의 사고 방식을 정리한 「사회자본 정비의 기본 전략」을 도입해나갑니다.

사회자본 정비의 기본 전략

①최저한의 방재성을 확보하기위한 사회자본 정비

- 본시의 재해위험을 일정 수준까지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
- 재해위험이 높은 지구의 개선을 꾀하고 최저한의 방재성을 확보

②거점의 육성에 기여하는 사회자본 정비

- 도심·부도심 등의 거점의 도시 기능 향상에 드는 투자를 우선
- 장래 도시구조에 있어서의 거점 기능 강화에 대응한 시책에 투자를 중점화

③사회자본 정비 사업의 종합화 촉진

- 방재사업을 주요 사업으로서 관련하는 시책을 종합화로 인해 효율적·효과적으로 전개

④기본적인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대처의 유지

- 도로 수선이나 하수도 정비 등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착실하게 계속

⑤시가지의 무질서한 확대를 야기하는 사회자본 정비는 원칙으로 실시하지 않음

-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대를 야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의의를 자세하게 검증

사이타마시 진재 부흥 행동지침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 본시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시민·사업자와 행정이 일체가 되어 부흥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이타마시 진재 부흥 행동지침을 이하와 같이 정합니다.

사이타마시 진재 부흥 행동지침	제정 2015년 8월 26일 시장 결의
<p>(목적) 제1조 이 지침은 지역이 지진에 의해 대규모의 피해를 입 경우에 있어서 시민 및 시가 협동하여 피해 시가지의 부흥에 관계하는 대책을 종합적 또한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따라 재해에 강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시가지를 형성하고 더욱더 시민생활의 안정과 회복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정의) 제2조 본 지침에 있어서의 용어의 뜻은 건축기준법(1950년 법률 제 201호)의 예에 의함. (부흥의 이념) 제3조 시와 시민 및 사업자는 시가지의 부흥만이 아닌 시가지 부흥을 향한 준비에 대해서도 각 책무의 밑에서 협력해 나가는 노력을 하지않으면 안 된다. (시의 책무) 제4조 시는 사이타마현 및 관계하는 지방공공단체와 제휴를 계속 꾀하며 피해 후에는 신속하게 시의 부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사이타마시 도시 부흥 기본계획」이라고 함)을 책정하고 이것을 시민에게 넓게 공표함과 함께 동 계획에 의거하여 진재 부흥사업을 시민과 협동하여 추진하고 그 외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시는 시내의 재해위험성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재해시에 있어서의 피해의 경감 및 부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해위험성을 근거로 더욱 효과있는 부흥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하여 검토를 되풀이함과 함께 평소부터 대책을 강구해놓지 않으면 안 된다.</p>	<p>3 시는 평소부터 재해시의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 및 학습에 몰두하는 일을 한다 (시민 및 사업자의 책무) 제5조 시민은 그 평상시에 있어서는 방재도시만들기에 대하여 이해를 깊게 갖고 피해 후에 있어서는 스스로의 생활의 재건 및 진재 부흥사업의 협력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그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고 방재도시만들기에 대하여 이해를 깊게하고 피해 후의 사업활동을 통하여 시가지의 부흥에 노력함과 함께 진재 부흥사업 협력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시민 및 사업자는 방재도시만들기를 추진하는 위에 필요한 부지 및 도로 개선, 아울러 농지 및 자연지의 보전에 대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흥 우선순위) 제6조 시는 시의 중추기능을 책임지는 도심, 부도심의 거점 및 궤멸적인 피해에 의한 새로운 기반 정비나 지면 정비를 필요로 하는 구역부터 우선하여 부흥을 진행하는 것으로 함. 2 시는 평소부터 시가지 부흥의 우선순위 및 부흥의 역할분담에 관한 방침을 시민 및 사업자와 공유하는 것으로 한다. 3 시는 사이타마시 부흥 기본계획에 있어서 부흥 우선순위에 대해 제시할 수 있다.</p> <p>부칙 본 지침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p>

용어해설

장래도시구조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에 제시되는 장래도시의 골격적인 모습으로 토지이용이나 방재 등의 분야별 방침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방화지역·준방화지역	도시계획법을 기초로 하여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지구에서 건축물에 대해 내화·방화를 위한 규제가 정해져있습니다.
협애 도로	일반적으로는 폭 4미터 미만의 도로로 대규모 지진시에는 건축물의 도괴 등에 의해 피난이나 소화활동의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도로를 말합니다.
소방 수리	대규모 지진시 등에 있어서 화재를 상대로 방화 수조 등 소화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지구계획	도시계획법을 기초로 지구의 특성을 살린 양호한 환경의 정비나 보존을 목적으로 지구 시설(도로, 공원 등)의 배치나 건축물의 용도, 높이, 벽면 위치, 부지의 규모 등에 대하여 지구의 규칙으로 정하는 도시계획을 말합니다.
벽면 후퇴 거리	여유있는 도로 공간이나 쾌적한 주환경의 형성 등을 위하여 도로경계 또는 부지경계로부터 건축물의 벽면까지의 후퇴 거리를 정하는 것입니다.
모니터링	본 계획에서는 토지이용의 변화나 건축물의 경신 상황을 자료로서 파악·정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GIS	지리 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말하며 위치에 관한 정보를 가진 도로·건축물의 자료나 재해위험정보 등을 겹쳐모아서 가시화·공유하기 위한 정보기술을 말합니다.

모니터링의 결과는GIS에 의한 「방재마을만들기 정보지도」로서 공표하고 있습니다.



http://www.sonicweb-asp.jp/saitama_g

시 홈페이지에서

사이타마시 지구 정보

검색



사이타마시 방재도시만들기 계획

발행 : 사이타마시 도시국 도시계획부 도시총무과 정책계

〒330-9588 사이타마시 우라와구 도키와 6-4-4

TEL : 048-829-1394 FAX : 048-829-1979

HP : <http://www.city.saitama.jp/index.html>